

그림 1. 歐美現代住宅

그림 2. 李朝住宅

그러나 外部空間과 內部空間의 융합문제에 있어서 現代歐美的 住宅과 李朝住宅이 서로 다른 점은 그 바다처리의 문제이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듯이 歐美住宅은 大地의 바다과 內部空間의 바다면을 동등 Level로 하고 벽을 全面 유리로 함으로써 우리가 內部空間이 없더라도 外部空間과 內部空間은 잘 융

합되고 있다. 그러나 李朝住宅은 窓과 門의 構造의 특징으로서 外部空間과 內部空間의 융합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李朝住宅의 窓은 行廊의 밖안 들쭉으로 난 벽의 높은 곳에 난 들쭉 부엌, 광의 살창, 分閣 上部의 窓 이외에는 모든 중요한 室(안방, 전너방, 사방방 등)에는 문지방에서 거의 천장까지 이르는 亞字窓, 卍字窓, 卍字窓 등을 다다. 오늘날 이들을 窓이라 부르지는 않고 門이라 부르고 있으나 李朝人들은 窓이라 하였지 門이라 하지 않았다. 여기에 李朝人들이 생각한 窓의 개념이 建築計劃 原論의 門 문제와 떠나서 視覺의 第二次的 意義에 重點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大廳, 樓마루의 四方에는 分閣門을 달고 前記 窓의 밖에는 정자살피 살로된 礎를 다나 이 들은 모두 접어들쇠에 매달게 되어 있다. 이로서 생각해 볼 때 李朝住宅은 外部空間과 內部空間을 합 문제와 한층 선구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室에 단 門은 出入의 문제를 떠나서 空間 융합의 문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접어들쇠에 매달면 하나의 閉鎖空間에 開放性을 주어 우리가 설사 內部空間에 앉어 있다 하더라도 自然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것에 더한층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은 大廳天井의 노출된 사가래가 外部로 뻗어나가서는 처마를 이루고 있는 점이다.

합되고 있다. 그러나 그림 2의 李朝住宅은 大地 위에 일단 基壇을 구축하고 이 위에 內部空間을 건축함으로써 分閣門을 접어들쇠에 매달다 하더라도 人間(眼)이 內部에 존재하지 않으면 內部空間과 外部空間은 적극적으로 융합될 수 없다. 이러한 것은 樓마루, 樓마루, 亭子 등에서 한층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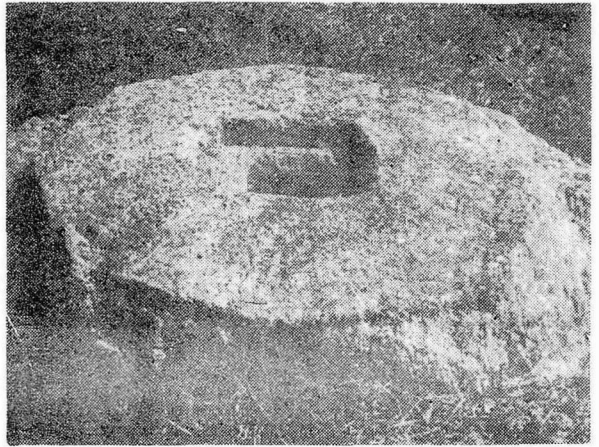
이상으로서 생각하여 볼 때 李朝住宅은 설사 우리의 사용이 없었다 하더라도 현대구미 주택보다 한결을 앞서서 外部空間과 內部空間의 융합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李朝住宅은 넓은 垵地의 주위를 行廊과 空塔으로 둘러싸고 行廊의 外部에는 조고만 들쭉만을 달고 垵地안에 여겨지기 세운 안채, 사랑채, 별당, 정자등에는 모두 접어들쇠에 달게 된 門과 커다란 窓을 달므로서 全體의 으로는 극히 閉鎖的이나 自體內에서는 극히 開放的인 空間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註, 建築學大系 7 X 空間論 太田實三五八P 彰國社

慶州狼山西麓의 木塔址

朴 日 薰

慶州狼山은 新羅王都의 都心부에 位置한 長軸이 南北으로 나즈막한 姿勢로 起伏된 小丘陵山이다. 東으로 明活山과 對峙하여 그 사이에 普門平野가 있고 西로 九黃坪이 展開되고 半月城을 眺望한다. 일즉 新羅都城의 鎮山으로 神聖視된듯 南領中腹에는 善德女王陵을 爲始하여 그下麓에 四天王寺址 北嶺東麓에 皇福寺等 數 많은 寺刹이 지붕을 連하였던 建物の 遺墟址가 櫛比하다. 이번에 發見된 新羅時代의 所重한 木塔址가 바로 이 狼山西麓에 遺存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調査되지 못한은 燈下不明格으로 至極히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現狀 그대로 皮相的인 調査에 依하면 木塔址는 狼山北嶺西腹에 新羅末期의 巨儒 崔孤雲先生의 讀書堂遺墟址가 있는 西麓에서 三八m 距離의 水沓中(九黃里四四



心에서若干南方에位置한心礎石은矩形的自然石이南北으로 놓여上面을若干부풀게다듬어直徑九六cm의八角形一段을造出하고中央에深五cm一邊一七cm方孔內에다시深三三cm一邊一七cm의 작은方孔이二重으로있어下方孔에는舍利를安置하고上方孔은木塔의擦竿柱를插入하였던穿孔임을斟酌할수있다.

原貌를 잃은方形築壇 現在까지遺存되고있음은中央에位置한心礎石 西쪽 側近에民葬한墳墓一基의管理區域임을알겠다.

여기에出土되는瓦埴類는三國時代에屬하는土蓋瓦片其中에도赤色으로變換한것 등으로 보아 이木塔은火災를입은듯하고無紋埴類가出土된은屋內敷埴인듯하다.

慶州에新羅時代의佛敎遺蹟中の木塔址를대강추려본다면皇龍寺址 輿輪寺址, 四天王寺址, 望德址, 普門寺址, 祇林寺等六個所였으나이번

八番地)에南向하였고金堂址로認定되는木塔址北方은水畝으로變하여礎石은一基도보이지않으나瓦片만散在했을뿐이고塔址에서南方約二六m地點農路傍에石燈伏蓮台石一基가뒤집어진체路面이되고있다. 木塔址는高約一m方形一邊이約一二m의平坦한土壇이維持되고있으나周圍耕地의漸次浸蝕으로縮少되고礎石마저散亂移動되어土壇周邊에一邊六二cm의方柱礎石만이리저리놓여있다.(東側一基北側三基, 西側四基) 土壇中

에狼山西麓의逸名寺木塔址를追加하게된다. 그런데이貴重한또나의遺蹟을調査하게된動機는新羅文化同人尹京烈氏의踏査에依한着眼과現場까지의親切한案内에의함인바그勞苦를깊이感謝하는바이다.

(一九六五、十、二五)

瑞山文殊寺 極樂殿

李 殷 昌

(一)

忠清南道瑞山郡雲山面胎封里的文殊寺極樂殿을調査한바있다.

一九六一年八月에開心寺重修에앞서서그基礎調査次故林泉氏와同行하였다. 修理의對象은大雄殿(寶物第一四三號)이었는데大雄殿의下段西側に있는尋劍堂의破損이極甚하여修理가緊急한狀態를보이고있었으니특히아깝게여겨이貴重한建物を살려야하겠다고하며그實測、作圖等調査作業을進行하였다(尋劍堂——一九六二年度國庫補助로修理完了)筆者는이분을맞난것도여러차례요또現場에同行한것도여러차례였지만그木造物에대한研究가깊고또古建物を아끼는두두러진誠意에새삼스레히感動하지않을수없었다. 開心寺에서一泊하고翌日에는草露에젖은타령을넘어普願寺址와雲山磨崖三尊佛立像을調査하고바른旅程을돌려文殊寺(註一)에案内하였다. 途中에「소낙비」를맞나옷을적시며目的地에當到한것이午後二時이었다. 그리고一休도없이直時이文殊寺正殿인極樂殿을調査하였고黃昏頃에雲山路頭에서惜別한以後再逢의機會를얻지못한채하음을듣고보니哀惜하기그지없다.

(二)

築臺는허우러져原形을喪失하였으나加工石材로再築造한基壇의